

백남준아트센터 《숨결 노래》 전시 연계 프로그램

에글레 부드비티테 <실려서 가고, 뒤에서 끌려가는 (Some Were Carried, Some - Dragged Behind)> 공개 퍼포먼스 워크숍 참여 퍼포머 공개 모집

백남준아트센터 전시 《숨결 노래》의 작가 에글레 부드비티테가 기획하는 <실려서 가고, 뒤에서 끌려가는>의 공개 퍼포먼스 워크숍에 참여할 퍼포머를 모집합니다.

《숨결 노래》는 사물과 자연, 비인간과의 연대를 표하고, 이주와 생태, 주변성에 주목하며, 회전초, 미생물, 주전자와 조개 로봇이 함께 노래하며 다성(多聲)의 목소리를 내는 작가들을 통해 미술관의 수행성을 탐구하고자 기획된 전시입니다. 이 전시의 워크숍을 기획한 에글레 부드비티테는 현재 빌뉴스와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음악, 시, 영상, 안무 등 다양한 매체를 다루며 퍼포먼스와 시각예술을 섬세하게 교차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부드비티테는 노래하기(Karaoke), 잡아끌기(dragging), 달리기(running) 등 직관적이며 강력한 신체 사용으로 지배적인 규범과 개념을 재인식하고 사회적인 통념의 견고함을 전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퍼포먼스와 워크숍이 결합된 형식의 <실려서 가고, 뒤에서 끌려가는>(2015~현재)은 공개 모집을 통해 모인 참여자 중 오디션의 과정을 거친 7명의 참여자들이 워크숍을 통해 안무를 익히고 공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안무는 참여자들이 2, 3 명씩 그룹을 만들어 서로를 바닥으로부터 들어 올리거나, 잡아 끌고, 안아서 업는 등 상대의 몸을 천천히 이동시키는 여러 가지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권력과 권위에 저항하는 신체에 가해지는 끌어당기는 행위 (Dragging)를 보살핌과 신뢰, 부드러운 신체적 행위로 전복시키는 흥미로운 시도를 합니다.

부드비티테가 2015년 호주 현대미술센터 (ACCA)에서 시작한 이 퍼포먼스/워크숍은 2021년 코펜하겐과 2022년 런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시의 협업자, 참여자들과 함께 장소에 따라 맥락을 조금씩 달리하며 새롭게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작가가 직접 안무하는 새로운 퍼포먼스 워크숍이 열립니다.

■ 개요

1. 제목: 실려서 가고, 뒤에서 끌려가는(Some Were Carried, Some - Dragged Behind)
2. 내용: 공개 퍼포먼스 워크숍
3. 모집인원: 7명

■ 진행일정

1. 오디션
2024년 11월 2일(토), 백남준아트센터 *세부 장소 및 시간 별도 공지
2. 리허설

2024년 11월 4일(월) 11월 6일(수), 백남준아트센터 *세부 장소 및 시간 별도 공지

3. 공개 퍼포먼스 워크숍

2024년 11월 8일(금), 9일(토), 11:00 백남준아트센터 뒷마당

40분 소요

■ 참여신청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기소개와 퍼포먼스, 공연 경험에 대하여 자유롭게 작성하여 8월 31일까지 아래 이메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별도 형식 없음)

kwonjin@njpartcenter.kr

* 참여 퍼포머는 오디션 1회, 리허설 2회, 공개 퍼포먼스 워크숍 2회 일정에 모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연일정은 확정이며 오디션 및 리허설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참여 퍼포머에게는 소정의 비용으로 25만원이 지급됩니다.

■ 참조사항

작가 및 퍼포먼스

<https://www.eglebudytyte.lt/some-were-carried-some-dragged-behind/>

백남준아트센터 《숨결 노래》 전시

<https://njp.ggcf.kr/exhibitions/215>

